

증가세 둔화 하루 확진 두자릿 수...광주는 16번째 확진자

유럽여행 다녀온 40대 여성...남편 1차 검사 음성 재검사 준비 정부 "안심할 단계 아니다"...집단시설 소규모 감염 차단 관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만에 추가로 나오는 등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는 등 일시 소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도 호남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하루 확진자 증가폭이 23일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15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에 사는 여성 A씨(44)가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다. 광주에선 신천지와 관련있는 확진자(광주 15번째)가 나온 지난 8일 이후 6일 만의 추가 환자 발생이다.

이 여성은 지난 2일부터 유럽을 여행하고 지난 12일 입국했으며, 인천공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왔다. 이 여성은 여행을 다녀온 이후엔 주로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를 광주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

다. A씨 유럽 여행에 동행한 남편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보건 당국은 재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A씨가 추가되면서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이 중 3명은 완치됐고, 12명은 병원에서, 1명은 집에서 격리 중이다.

전남은 지난 13일 전남 3번 환자(22)가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면서 이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전남지역 코로나 19 환자는 단 2명이다. 전남 2번 환자(여·25)는 지난 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4번 환자(여·36)는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일 이후 14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하루 증가 폭이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22일부터 100명대에 진입한 뒤 최고 900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6명으로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발표일 기준으로 12일 114명, 13일 110명, 14일 107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이날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가 된 건 지난 달 21일 이후 23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74명에서 22일 190명이 된 후 매일 100명 이상 발생했다. 국내 코로

나19 확진자는 지난 1월 20일 처음 발생한 후 2월 18일 신천지대구교회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909명의 환자가 추가되는 등 증가폭이 정점에 이르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진단검사가 마무리된 영향이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수도 늘고 있다. 누적된 완치자 수는 지난달 28일 오전 26명에서 일주일 뒤인 지난 6일 0시 기준 108명으로 100명을 넘겼다. 이어 10일 247명, 12일 333명을 기록했다. 이후에는 완치자가 연일 100명 이상 나오면서 13

일에는 510명, 14일, 714명으로 늘었고, 이날 834명으로 경중 뒤편이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도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감염에 취약한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서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각종 사업장, 종교기관, PC방, 의료기관 등에서 소규모 유행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광주 16명, 전남 4명 등 총 8162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코로나 격파! 힘내자 대한민국” 광주시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과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은 지난 13일 오후 구청 현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쳤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순천의료원에 대구 코로나19 환자 입원

자가격리중인 확진자 60명

대구 '코로나 19' 환자 60명이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 요청에 따라 대구지역에서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 60명이 13일에 이어 16일 각각 30명씩 순차적으로 순천의료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남도는 순천·강진·목포의료원 3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90일 337병상을 모두 비웠다.

또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 치료

공간의 이동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등 환자 수용 준비를 마쳤고, 의료원 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대폭 강화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코로나19' 치료사 순천의료원에 입원할 대구 지역 환자들을 맞아하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들을 지원할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들은 불안감을 내리놓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응원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범적·안정적...광주시 대응은 전문가급”

정세균 총리, 안전대책회의서 호평...전국 시도에 반영 지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모범적·안정적 방역 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온 광주시가 이번엔 국무총리로부터 '전문가급의 방역 행정'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지방정부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현황 점검을 위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영성회의)'에서 광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환자 치료체계 등을 보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자가격리 대신 생활치료시설 격리를 통해 접촉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매뉴얼에 따라 (타 지자체체들은) 임상기준, 검사기준, 격리기간 등 3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격리해제를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신천지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격리해제

하는 등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신천지 신도이자 광주 3번(전국 126번) 확진자를 퇴원 후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했으며, 격리 해제 기간에 재검사를 통해 양성 상태를 확인하고 재입원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이 시장은 또 "전국적으로 확진자와의 접촉자에 대한선 증상이 없을 경우 14일 경과하면 다음 날 격리해제하고 있으나, 광주는 고위험군에 대한선 증상이 없더라도 최종 검사 후 해제 여부를 판정하도록 매뉴얼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시설 격리를 하는 등의 조치는 '잔불을 잡아 큰 산불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논리로, 타 시도에서는 광주시의 사례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지자체 첫 無담보·이자·보증 용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경영자금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증료와 1년간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무담보·무이자·무보증용 융자 혜택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소비 심리와 대외 활동 위축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자격은 광주 소재 소상공인으로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이며 신용도,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이자 1.5%와 보증 수수료 0.8%

를 대신 부담한다. 1년 이후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 사례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7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1인당 최대 259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시는 중소기업지원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이 재원이 소진되면 동일 조건의 특별보증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950-0011)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 위탁을 체결한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20일부터는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 확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씩 지급

전국 지자체 최초...취약계층 5만여명에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실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을 지급한다.

이 돈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지만, 전주시에서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해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힘이 될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인식되면서 전국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변형한 '긴급생활안정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5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의,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전주시가 애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000원 늘어난 52만7000원으로 증액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될 예정이며 3개월 안에 전주시에서 사용해야 한다. 승인이나 담배는 살 수 없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쓸 수 없다. 3개월 동안 쓰고 남은 환수 조치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 대상에 아슬아슬하게 빠져 있는 저소득층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성 기자 parkks@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의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동명건설 주식회사 M&A 공고

1. 개요
① 회사 개요: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회계회사로서,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
② M&A 방법: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투자 유치
③ 입찰 방법: 공개경쟁입찰

2. M&A 진행 일정
① 인수의향서 접수
- 접수기간: 2020년 3월 27일(금) 17:00까지 (대한민국 서울시간)
- 접수주소: 일우회계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71(화정동 783-20) 대광빌딩 6층]
- 제출서류: 인수의향서 및 관련 부속서류
②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 제공
- 인수의향서 제출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는 회사소개서(IM) 등의 자료 제공과 Q&A 등의 기회가 부여될 예정임.
③ 예상 업무 진행 절차
- 인수의향서 접수(정보이용료 납부 포함) 및 사전심사 → 예비심사자료 제공 → 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MOU) 체결 → 정밀심사 수행 → 투자계약 체결

3. 기타 사항
1. 인수의향서 작성 안내문 및 관련 부속서류 양식은 매각주간사에 요청하여 수령함.
2. 인수의향서 접수 이후의 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인수의향서 접수 후 개별통보 예정이며 입찰 참가는 인수의향서 제출자로 제한함.
3. 인수의향서, 입찰서류 등 본건 M&A와 관련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자매일 접수는 불가).
4.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5. 본 M&A 진행 절차, 인수의향서 접수기간 이후의 추가접수 여부, 적격투자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및 주권사의 고유권한으로, 잠재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본 M&A를 위한 매각절차의 주요한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심부중재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 및 회생회사 M&A 거래에서의 대한민국 민법, 일반적임 실무 관행 등에 따름. 본 매각 공고에 따른 인수의향서 제출 요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정액의 권유가 아니며, 정액의 권유는 인수의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만 이루어짐.

본 M&A 진행 관련 문의사항은 매각주간사인 일우회계법인(Tel: 010-4629-3235) 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명건설 주식회사 M&A 매각주간사 일우회계법인